

보도설명자료

(‘15.1.29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'말로만 경자구역, 외국인 투자는 찔끔' 제하
보도에 대한 입장 ('15.1.29. 디지털타임스 1면)

1. 기사내용

□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투자실적이 저조

- 2004~2012년까지 9년간 30억5000만 달러로 전체 외국인 투자 유치액의 4.1%에 불과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

□ 경제자유구역 기반 조성이 진행됨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
외투 유치액과 전체외투 대비 비중이 점차적으로 증가
추세에 있으며, 특히 지난해 호조세(14.3억 달러)를 보임.

< 경제자유구역 외투추이 및 전체외투 대비 비중 >

구분	'04~'06	'07~'09	'10~'12	'13~'14
경자구역 FDI도착	5억 달러	10억 달러	15억 달러	20억 달러
전체외투 대비 비중	1.8%	4.5%	6.6%	9.1%

□ 향후 지구개발촉진, 투자여건 개선과 유치 활동 강화를 통해
외국인 투자를 획기적으로 제고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음.

※ 관련 문의 :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정책기획팀 전윤중 과장(044-203-4610)
경제자유구역기획단 정책기획팀 김도현 사무관(044-203-4611)